

영광군 생활밀착형 돌봄 지원 강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제2의 도약

출산율 6년 연속 전국 1위
키즈카페·긴급돌봄·공동육아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도

영광군이 전국 출산율 1위와 생활밀착형 가정복지 기반을 바탕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경제적 지원부터 생활 속 돌봄 인프라까지 군은 가정 중심의 맞춤형 복지를 통해 출산과 육아 부담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지역 사회를 조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영광군은 6년 연속 전국 최고 출산율을 기록하며 차별화된 육아 정책의 효과를 증명하고 있다. 전국 평균 출산율(0.75명)의 두 배가 넘는 1.71명이라는 수치는 단순한 복지 제공을 넘어 생활밀착형 지원 시스템이 실효성을 발휘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영광군의 육아 정책은 경제적 지원을 넘어 실질적인 돌봄 서비스 확충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출생 기본수당, 육아용품 지원, 첫 만남 이용권, 다둥이 가정 지원 등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부모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돌봄 인프라 구축에도 집중하고 있다. 9월 본격적으로 운영되는 ‘우리 아이 긴급·일시돌봄터’는 맞벌이 가정이나 돌봄 공백이 발생한 부모들이 3~12세 아동을 맡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또 ‘장난감도서관’과 ‘공동육아 나눔터’는 놀이 문화 활성화와 공동체 육아 모델을 강화하며 육아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군은 놀이 환경 개선을 위해 ‘영광형 키즈카페’ 건립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착수보고회를 진행했으며, 미세먼



영광군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구축을 목표로 다양한 돌봄 정책과 육아 친화형 인프라를 확대하고 있다. 장세일 군수가 어린이들과 함께 걷는 모습. <영광군 제공>

지·육서기에도 안전한 놀이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접근성, 시설 유형, 지역 수요를 검토하고 있다.

실내 놀이시설은 보호자는 물론 아이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군은 소규모 실내 놀이터부터 테마파크 형까지 다양한 모델을 분석해 최적의 형태를 도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영광군의 돌봄 정책은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참여형 정책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어린이집연합회, 청년센터, 교육지원청 등 지역 기관과 협력해 설문조사와 원탁회의를 통해 실수요자의 의견을 수렴하며 지역 공동체의 돌봄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특히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운영하여 가족

내 육아 역할 균형을 지원하는 한편 가사·돌봄의 공동 책임을 확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는 부모 간 역할 분담을 실현하는 동시에 지역 출산율 유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영광군의 생활밀착형 육아 지원 모델은 단순히 현재의 출산율을 높이는 것을 넘어 장기적인 지역 발전 전략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향후 예산 안정적 확보, 돌봄 사각지대 해소, 주민 참여형 운영 모델 강화를 목표로 지속 가능한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영광형 키즈카페를 포함한 다양한 돌봄 인프라가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의 기반이 될 것”이라며 “돌봄과 놀이, 지역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영광=김창원 기자 kcw@kwangju.co.kr

신안-목포 청소년 31명 스마트팜서 미래 농업 체험

신안군과 목포시 청소년들이 지난 13일 팔금면 스마트팜에서 ‘신안 IN 잡(JOB) 고(GO)’ 교류 활동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자원을 활용한 진로 체험을 통해 생활 인구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신안군 청소년 17명과 목포시 청소년 14명, 지도자 9명 등 총 40명이 참여했으며, 안전 교육을 시작으로 ‘미래의 농업’을 주제로 김진성 탈성팜 대표의 강연을 들었다.

특히 1004섬 분재정원을 찾아 농업과 자연, 지역 문화가 어우러진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행사에 참가한 한 학생은 “농업이 자연과 기술 문화가 융합된 멋진 진로임을 알게 됐으며, 스마



지난 13일 ‘신안 IN 잡(JOB) 고(GO)’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이 케이크를 만들며 교류 활동을 하고 있다. <신안군 제공>

트팜의 자동화 시스템을 보고 농업 기술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신안군 관계자는 “이번 진로 체험을 통해 청소년들이 지역의 가능성을 경험하고 미래 사회에 능

동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영암경찰서 이전부지 활용 군민이 결정한다

24일 토론회 공공복합공간 등 논의

영암군이 경찰서 이전에 따른 부지활용 계획을 군민과 함께 결정한다.

영암군은 오는 24일 영암읍행정복지센터에서 ‘영암경찰서 이전 부지 활용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현 영암경찰서가 이전하고 나면 남은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의논하는 공론의 장이다.

영암군은 이전 부지 활용과 관련 큰 방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역사자원 재조명, 영암군민 공공복합공간 등을 잡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영암군민과 전문가, 공직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1부 전문가 6명 안전 토론회, 2부 주민 의견 청취 등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군은 사전설문조사와 토론회를 거쳐 영암군민의 필요와 관심을 이전부지 조성에 폭넓게 반영하고, 모두가 함께 이용하며 즐기는 장소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특히, 역사·문화·체협 등 영암군민 삶의 질을 높이는 열린 공간으로 재구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명돈 영암군 공영개발사업단장은 “기존 경찰서 부지를 영암군민이 즐기는 공공복합공간으로 조성하는 등 지속가능한 지역활력 기반 마련을 위한 사전설문조사와 토론회에 많은 분들의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영암=전봉현 기자 jbh@kwangju.co.kr



지난 12일 제2기 ‘진도 군민 리더대학’ 입학식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진도군 제공>

제2기 ‘진도 군민 리더대학’ 35명 입학식

진도군이 지난해에 이어 제2기 ‘진도 군민 리더대학’ 입학식을 개최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오는 12월 11일까지 매월 2회 (둘째 주, 넷째 주 목요일) 운영되는 ‘리더대학’에서는 지도력(리더십) 역량 강화 교육과 농수산, 관광, 보건복지, 문화예술, 지방소멸 대응 전략 등 군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맞춰 다양한 분야의 교육이 진행된다.

또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리더양성’을 목표로 민선 8기 4년차 진도 군정의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운영될 예정이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군민 리더대학에서의 교육과 경험을 통해 역동적이고 담대한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해 군정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kwangju.co.kr

해남군, 작은학교 중3 해외문화탐방 프로그램

1·2기 나눠 학생 142명 참여

해남군이 관내 작은학교 중학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하는 해외문화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해남군교육재단, 해남교육지원청과 함께 2024년부터 시작한 이 프로그램은 지역 청소년들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적 시야를 넓히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올해는 총 3억원의 군비를 투입해 2차례 진행된다.

1기는 16~20일 송지중, 황산중, 우수영중, 화원중 총 67명 학생들이 참여한다. 2기는 7월 14~18일 두륜중, 화산중, 현산중, 북평중, 산이중 학생

총 75명 학생들이 함께한다.

탐방 일정은 일본 홋카이도 지역 다테시티 넥스트 제너레이션 에너지 파크, 삿포로 차세대 에너지 파크, 홋카이도 대학박물관 등 학생들이 국제적 감각을 익힐 수 있는 견학지가 포함됐다.

주변 관광지 방문 등을 통해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고 힐링할 수 있는 기회도 갖게 된다.

해남군교육재단 이사장인 명현관 해남군수는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라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국제적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그린알로에

그린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알로에 베라겔 즙액으로 400%

그린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제조사 : 코스맥스엔비티(주)
■유통전문판매원 : (주)그린알로에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광고심의를 받은 광고를 입니다.